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연구실, 작전지휘실을 돌아보시고 대련합부대의 방위작전계획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부대의 싸움준비에 대하여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지휘부정사를 더 잘 꾸리고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도서실과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에서 컴퓨터자료전송체계를 세워준 결과 군인들이 매일 당보와 군보를 정상적으로 보고 당의 목소리를 늘 듣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도서실에 필독도서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군인들속에서 책읽기와 감상문쓰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사람이 밤을 먹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가에게는 사상정신적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모든 군인들을 죽여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직속중대의 병실, 교양실과 군인식당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움준비완성에서 후방사업이 중요하것만큼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남새재배와 농농사, 수산과 축산은 물론 양어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은 봄철농경기라고 하시면서 대련합부대 군인들이 농촌지원사업을 잘하여 군민관계를 개선하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당의 중대한 구상에 따라 대규모감자산지로 전변되고있는 백암지구 휴궤발전투에 동원되어 맡은 과제를 훌륭히 수행했으며 지금은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조건설장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부대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전투적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과업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기념사진촬영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그들을 모두 불러 기념사진을 또다시 찍으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메어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조국의 북변초소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전체 장병들이 단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무적의 담력과 지력을 안겨주시고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애몰이 그대로 생세, 방패가 되어 백두산대군의 위대한 태양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송고한 동지적믿음, 열렬한 애국충정의 고귀한 증표

총련결성 이후 지난 60년간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국가수훈자, 명예칭호소유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 자람, 자위로 위용떨치고 사람들의 자주적인 삶이 꽃피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끝없이 융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해외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피주는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은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애국자로 키워주는 한없이 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피눈물의 그 세월 죽음의 고역장에서 등살을 벗기우던 력사의 수난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도 그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극적인 운명전환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어 조국과 민족이 알고 세상이 아는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저명한 해외교포활동가로 키워주시였으며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그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들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수고와 공로를 몇감절 더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총련결성 이후 지난 60년간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김일성상과 김정일상 등 공화국의 최고훈장, 최고영예상들을 수여받았으며 로력영웅으로, 조국통일상, 사회주의 애국상수상자로, 인민교원, 공훈교원, 인민

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으로, 원사, 교수, 박사도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본과 같이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총련일군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생을 바친 우리 혁명의 귀중한 원로, 로력영웅, 참된 애국충신,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라는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한덕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초대위원장 김일성훈장(세차례)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은정속에 그는 공화국 명예원사, 교수, 박사의 명예칭호와 학위학직도 지니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년대와 세기를 이어 해외교포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겼던 서만술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도 김일성훈장(두차례)수훈자, 로력영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훈장을 제정되었을 때 그를 첫 수훈자들의 대오에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외혁명동지라는 고귀한 믿음을 받아안은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도 김일성훈장(두차례),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로력영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지식하고 일밖에 모르는 총신이라고 하시며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리진규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은 김일성훈장(두차례)과 김일성상,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조국통일상수상자, 교수로 되었다. 이밖에도 수많은 총련일군들이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차디찬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차별과 시기각각으로 덮쳐드는 파산의 위협속에 한훈두훈 피땀으로 마련한 재부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재일동포상공인들도 영광의 단상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자기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애국적 상공인, 진보적상공인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부여주시였다. 안상택동포를 김일성훈장수훈자로, 2중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수도의 모란봉기슭 풍치수려한 거리로 그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은 오늘날 조국땅우에 뜨거운 동포애의 전설로 울려 퍼지고있다.

박희덕 전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고문, 문병연 전 오사까부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상공인들이 김일성훈장수훈자로, 2중로력영웅, 로력영웅으로, 사회주의 애국상수상자로 애국의 보람찬 삶을 빛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이역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성을 고수해나간다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각별한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래동안 총련교육부에서 사업하면서 학생들을 민족의 대, 총련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믿음직한 애국인재로 키워내는데 크게 기여한 남시우 전 총련 조선대학교 학장은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조국통일상수상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고 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조선대학교 조선어연구소 소장이었던 박정문동포가 조선어연구와 관련한 학위문증을 집행하던중 순직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조국의 권위있는 어학집단이 그의 문증을 완성시켜주도록 하시였으며 세상을 떠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총련의 명맥인 민족교육을 굳건히 사수하기 위한 애국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페교의 위기까지 처하였던 학교를 구원한 리경애 총련 니시도교조선제2초급학교 교장도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이 들뿐아니라 수많은 총련교육자들을 인민교원, 공훈교원으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총련의 예술을 세계해의교포예술의 본보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모든 공로를 동포애들한테 돌려주시였다.
가난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토목공과 철공 등 사회의 최하층에서 헤매이던 전 총련 금강산가극단 배우 엄국지동포는 조국의 가수들보다 민요를 더 잘 부른다는 절세위인의 과분한 평가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공화국의 어엿한 인민배우로 자라날수 있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은정의 손길은 수많은 동포애들한테 돌려주시고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공화국의 어엿한 인민배우로 키워주었다.
어머니조국은 이역땅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재일동포체육인들의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었다.
젊은 시절부터 일본무도계의 당당한 실력자로서 조선사람의 빛과 기개를 과시하고 우리 민족무술을 고수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을뿐아니라 총련조직을 믿음직

하게 보위한 강장수 전 총련전도연구원 원장도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세계프로틴투계의 왕자로 명성떨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총련수선수도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은정속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으로 성장하였다.
겉을 겉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양분으로 되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떠밀어 주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참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시야말로 숭고한 믿음과 의리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령도자,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개척되고 전진하여왔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총련애국위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며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어머니사랑을 길이 전하며 애국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것이다.
본사기자